

레벨1. 똑바로 서라 문법!

<머종이형과 달려라 보충자료1> - 대수능기출편 -



현 메가스터디 러셀 강사
현 분당 명인 강사
전 오르비 전체 1타 강사
저서 : 국어, 치열하게 독하게!
대중 모의고사

<챕터1. 품사와 문장 성분>

<대명사>

1. <보기>의 예를 통해, 문맥 속에서 인칭 대명사의 특성을 파악하는 활동을 해 보았다.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?1)

<보 기>

㉠ **내**가 부탁 하나 할게요. ㉡ **나**는 ㉢ **그쪽**에서 ㉣ **우리** 아버지의 책을 맡아 주었으면 해요. 이걸 ㉤ **아버지**의 뜻이기도 하답니다. 아버지께서는 ㉥ **당신**의 책을 목숨처럼 소중하게 생각하시지요. ㉦ **당신**에게 그 책을 맡기시려는 것을 보니 당신을 무척 믿으시는 것 같아요.

- ① ㉠과 ㉡을 비교해 보니 ㉠은 '나의'를 줄인 말이겠군.
- ② ㉢과 ㉦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아.
- ③ ㉤은 ㉡과 ㉣을 아울러 가리키는 말이야.
- ④ 앞 문장에 나온 말을 반복하는 건 어색하니까 ㉤은 적절한 대명사로 바꿔야 해.
- ⑤ ㉥은 높임법에 맞지 않으니 '자기'로 바꿔야 해.

<대명사>

2. <보기>의 ㉠~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2)

선생님 : 안녕? 어, 손에 들고 있는 그거 뭐니?

학 생 : 네, 중생대 공룡에 관한 책이에요. 할아버지께서는 제 생일마다 책들을 사 주셨는데, ㉠이것도 ㉡그것중 하나예요. 해마다 할아버지께서는 ㉢당신 손으로 직접 골라 주신답니다.

선생님 : 그렇구나. ㉣우리 집 아이들도 공룡 책을 참 좋아하지. 우리 아이들은 ㉤저희들끼리 책을 고르려고 아옹다옹한다.

- ① ㉠은 대화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대상, 곧 학생이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.
- ② ㉡은 앞서 언급한 대상, 곧 할아버지께서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.
- ③ ㉢은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.
- ④ ㉣은 청자를 포함하지 않는다.
- ⑤ ㉤은 1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.

<조사>

3. <보기>의 ㉠에 해당하는 것은?3)

<보 기>

명사는 보통 모든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. 그러나 '극비리'는 ㉠ 원칙적으로 '에' 외의 조사와는 결합하지 않는 명사로, '극비리에 사업을 추진하다.'처럼 사용되고, '극비리가', '극비리를', '극비리의', '극비리에게', '극비리이다'처럼 사용되지 않는다.

- ① 사고를 **미연**에 방지하지 못했다.
- ② 이 **판국**에 네가 나한테 그럴 수는 없다.
- ③ 선생님 **덕분**에 무사히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.

- ④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.
- ⑤ 다들 제멋에 사는데 이러니저러니 간섭하지 않는 것이 좋다.

<서술어>

4. <보기>의 내용을 근거로 하여 잘못된 문장을 수정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(서술어 자릿수에 대한 이해+<보기>를 독바로 읽어봐)4)

<보 기>

서술어의 자릿수는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수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다. 서술어의 자릿수란 서술어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문장 성분의 수를 의미하는 데, 다음과 같은 예를 들 수 있다.

- 한 자리 서술어 : 꽃이 피었다.
- 두 자리 서술어 :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.
- 세 자리 서술어 : 동생은 나에게 책을 주었다.

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있으면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되므로 그 성분을 보충하여야 한다.

- ①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.
→ 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정부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.
- ②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.
→ 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.
- ③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소개하였다.
→ 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누나에게 소개하였다.
- ④ 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.
→ 우리는 그 일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.
- ⑤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울 수밖에 없다.
→ 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동네 지리에 어두울 수밖에 없다.

<문장 성분 일반>

5. <보기>의 ㉠~㉣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(3패턴 활용) 5)

<보 기>

명사절은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. 다음의 밑줄 친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알아보자.

- ㉠ 색깔이 희기가 문과 같다.
- ㉡ 농부들은 비가 오기를 기다린다.
- ㉢ 부모는 언제나 자식이 행복하기 바란다.
- ㉣ 제비는 겨울이 오기 전에 남쪽으로 떠났다.
- ㉤ 지금은 우리가 학교에 가기에 아직 이른다.

- ① ㉠ :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.
- ② ㉡ :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다.
- ③ ㉢ :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목적어로 쓰였다.
- ④ ㉣ :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부사어로 쓰였다.
- ⑤ ㉤ :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.

<구조 일반>

6. 다음 ㉠, ㉡의 문장 성분과 문장 구조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?(범주설정)[3점]6)

- ㉠ 친구들은 내가 노래 부르기를 원한다.
- ㉡ 우리는 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을 몰랐다.

- ① ㉠에는 부사어가 있지만 ㉡에는 부사어가 없다.
- ② ㉠에는 명사절이 안겨 있지만 ㉡에는 부사절이 안겨 있다.
- ③ ㉠에는 서술절이 안겨 있지만 ㉡에는 관형절이 안겨 있다.
- ④ ㉠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있지만 ㉡의 안긴문장 속에는 관형어가 없다.
- ⑤ ㉠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있지만 ㉡의 안긴문장 속에는 목적어가 없다.

<구조 일반>

7. <보기>를 이용하여 국어 문장 구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.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?)

<보 기>

- ㄱ. 담장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.
- ㄴ. 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.
- ㄷ. 그 사람은 아는 것도 없이 잘난 척을 해.

- ① 위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다른 문장 속에 안긴 문장입니다.
- ② 그런데 ㄱ, ㄴ, ㄷ에서 밑줄 친 부분은 각각 관형어, 목적어,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.
- ③ ㄱ의 밑줄 친 부분에는 주어와 주어는 '담장'입니다.
- ④ ㄴ에서는 밑줄 친 부분뿐 아니라 '그가 착한'과 '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'도 안긴 문장입니다.
- ⑤ 이처럼 우리말은 문장 속에 문장을 안은 형태로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

<챕터2. 표현 파트>

<중결표현>

8. <보기>를 참고할 때, 밑줄 친 말이 ㉠에 가장 가까운 것은?8)

<보 기 >

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하는 문장이다. 즉, 청유문은 청유형 어미 '-자', '-(으)ㅂ시다' 등이 붙는 서술어의 행동을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하도록 유발하는 것이다. 그러나 간혹 청자만 행하기를 바라거나 ㉠화자만 행하려는 행동을 나타낼 때에도 쓰인다.

- ① (반장이 떠드는 친구들에게) 조용히 좀 하자.
- ② (엄마가 아이에게 약을 먹일 때) 자, 이리 와서 약 먹자.
- ③ (다툼 친구에게 화해를 청하면서) 오늘 영화나 같이 보러 가

자.

- ④ (식사를 먼저 마친 사람들이 귀찮게 말을 걸 때) 밥 좀 먹읍시다.
- ⑤ (학급 회의에서 논의가 길어질 때)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토의합시다.

<시제 표현>

9. 밑줄 친 부분이 <보기>의 ㉠~㉣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9)

<보 기>

선어말 어미 ‘-았-/-었-’은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닌다.
 (가) 오늘 아침에 누나는 밥을 안 먹었어요.
 (나) 들판에 안개꽃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.
 (다) 이렇게 비가 안 오니 농사는 다 지었다.

(가)에서와 같이 ㉠ 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의 것임을 나타내기도 하고, (나)에서와 같이 ㉡ 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도 한다. (가)의 경우와 달리 (나)의 경우에는 ‘-았-/-었-’을 보조 용언 구성 ‘-아/-어 있-’이나 ‘-고 있-’으로 교체하여도 의미가 달라지지 않는다. 또한 (다)에서와 같이 ㉢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임을 나타내기도 한다.

- ① ㉠ ㄱ A : 어제 뭐 했니?
 ㄴ B :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았어.
- ② ㉠ ㄱ A : 너 아까 집에 없더라.
 ㄴ B : 할머니 생신 선물 사러 갔어.
- ③ ㉡ ㄱ A : 감기 걸렸대며?
 ㄴ B : 응, 그래서인지 아직도 목이 잠겼어.
- ④ ㉡ ㄱ A : 소풍날 날씨는 괜찮았어?
 ㄴ B : 아주 나빴어.
- ⑤ ㉢ ㄱ A : 너 오늘도 바빠?
 ㄴ B : 응, 과제 준비하려면 오늘도 잠은 다 잤어.

<높임 표현>

10. <보기>의 ㉠, ㉡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? 10)

어미나 종결 어미, 조사 등을 통해 높임을 표현하지만,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.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.

주체를 높이는 용언 (예계시다)㉠
 객체를 높이는 용언 (예드리다)
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 (예선생님)
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 (예진지).....㉡

- ① 나는 아직 그분의 성향을 기억하고 있다.
- ② 누나는 여쭙 것이 있다며 할머니 댁에 갔다.
- ③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흥시를 잘 잡수신다.
- ④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.
- ⑤ 어머니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.

<챕터3. 표기, 문장 다듬기 파트>

11. <보기>의 ㉠, ㉡의 예로 적절한 것은? <수능> 11)

‘<한글 맞춤법> 제4장(형태에 관한 것)’의 파생어와 합성어에 대한 표기 규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.

-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
-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 ...㉠
-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.....㉡
-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

- | | | |
|---|--------|--------|
| | ㉠ | ㉡ |
| ① | 길이, 마중 | 무덤, 지붕 |
| ② | 무덤, 지붕 | 뒤뜰, 쌀알 |
| ③ | 뒤뜰, 쌀알 | 무덤, 지붕 |
| ④ | 길이, 무덤 | 뒤뜰, 쌀알 |
| ⑤ | 마중, 지붕 | 길이, 쌀알 |

12. <보기>를 바탕으로 한글 맞춤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 12) <수능>

<보 기>

제5항

㉠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.
 예 어깨, 잔뜩, 살짝, 등뿔, 몽땅

㉡ 다만, ‘ㄱ, ㅂ’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,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.
 예 국수, 법석

제27항

㉢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은 각각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.
 예 칼날, 꽃잎, 말사위, 흙이불

- ① ㉠을 보니 모음 뒤나 ‘ㄴ, ㄹ, ㅁ, ㅇ’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가 소리 나는 대로 표기되어 있군.
- ② ‘납짝’이 아니라 ‘납작’으로 적는 것은 ㉡의 ‘법석’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.
- ③ ‘짹짹하다’가 아니라 ‘짹짹하다’로 적는 것은 ㉡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군.
- ④ ‘물뽕’이 아니라 ‘물병’으로 적는 것은 ㉢의 ‘칼날’을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.
- ⑤ ‘깍두기’가 아니라 ‘깍두기’로 적는 것은 ㉢의 ‘말사위’를 표기할 때 적용된 규정을 따른 것이군.

13. <보기>의 자료를 읽고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13) <수능>[3점]

—<보 기>—

【맞춤법 규정】

제19항 어간에 ‘-이’나 ‘-음’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‘-이’나 ‘-히’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. (예) 먹이, 믿음 등.

다만, 어간에 ‘-이’나 ‘-음’이 붙어서 명사로 바뀐 것이라도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. (예) 목거리(목이 아픈 병), 노름 등.

[붙임] 어간에 ‘-이’나 ‘-음’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. (예) 마중, 무덤 등.

【맞춤법 규정 제19항 해설】

-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는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 것이 원칙이나, 그 어간의 뜻과 멀어진 단어는 밝혀 적지 않는다.
-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가 어간에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는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.

- ① ‘먹이’를 ‘머기’로 적지 않는 것을 보니 ‘-이’가 널리 쓰이는 접미사겠군.
- ② ‘목거리’와 달리 ‘목걸이(장신구)’는 어간의 뜻과 멀어지지 않은 예로군.
- ③ ‘마중’을 ‘맞웅’으로 적지 않는 것을 보니 ‘-웅’이 널리 쓰이지 않는 접미사겠군.
- ④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붙어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은 예로 ‘같이’를 추가할 수 있겠군.
- ⑤ 널리 쓰이는 접미사가 붙었지만 어간의 뜻과 멀어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예로 ‘마개’를 추가할 수 있겠군.

14. 표현이 바르게 된 문장은? <수능>[1점]14)

- ① 이 배는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릅니다.
- ② 우리 모두의 바람은 가족의 건강이야.
- ③ 모금한 돈이 너무 작아 죄송합니다.
- ④ 내년에는 수출량을 더 늘려야 한다.
- ⑤ 김장을 직접 담아 드십니까?

15. 맞춤법에 맞는 것은? [1.8 점]<수능>15)

철수는 어머니를 도와 ㉠ 설것이를 하였다. 철수는 먹다 남은 ㉡ 찌개와 ㉢ 온갖 반찬 찌개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였다. 그 때 ㉣ 텔레비전을 보고 ㉤ 계시든 어머니께서 놀라며 말씀을 하셨다. “애, 안 돼. 분리 수거를 해야지.”

- ① ㉠ ② ㉡ ③ ㉢ ④ ㉣ ⑤ ㉤

16. <보기>의 ㉠에 들어갈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?<수능>16)

<보기>

“확실한 사실은 그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살아왔다.”는 주어인 ‘사실은’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어서 잘못된 문장이다. 이와 같이 주어와 서술어 사이에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은 또 다른 문장의 예는 다음과 같다.

㉠

- ① 회원들은 상품 구매를 싸게 구입할 수 있다.
- ② 이 글의 특징은 길이가 짧지만 인상은 강하다.
- ③ 아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께 여간한 기쁨이었다.
- ④ 새 기계는 유해 물질과 연료 효율을 높여 주었다.
- ⑤ 그는 자신의 행복한 마음을 형언할 방법을 찾았다.

1) 정답 ②

㉔의 '그쪽'과 ㉕의 '당신'은 공통적으로 <보기>에서 '나'의 말을 듣는 이를 가리킨다. 즉, ㉔과 ㉕은 가리키는 대상이 같으므로 ㉔가 옳은 설명이다.

① ㉔의 '내'는 '나'에 주격 조사 '이'가 결합된 형태이다.

③ ㉔의 '우리'는 말하는 이가 자기보다 높지 아니한 사람을 상대하여 어떤 대상이 자기와 친밀한 관계임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다.

예) 우리 엄마, 우리 신랑, 우리 아기

④ ㉔은 <보기>에서 말하고 있는 '나'의 아버지이므로 대명사로 바꾸기 어렵다. 우리말은 말하고 있는 당사자가 자신의 아버지나 어머니 같은 대상을 대명사로 지칭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.

예) 너의 어머니는 어디에 가셨니?

→ F 그녀는 백화점에 가셨습니다. (X)

↳ 어머니는 백화점에 가셨습니다. (O)

⑤ ㉔의 '당신'은 바로 앞의 '아버지'를 높여 이르는 말로 쓰였기 때문에 높임법에 맞는 표현이다. 즉, 이때의 '당신'은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대명사인 '자기'를 아주 높여 이르는 말이다.

2) 정답 ⑤

14. 각 품사의 특징 파악

정답 해설 : 이 문항은 다양한 지시어가 쓰인 담화를 제시한 후, 각각의 지시어들의 의미기능에 대해 탐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. 정답은 ⑤로, ㉔의 '저희'는 1인칭 복수 '우리'의 낮춤말이 아니라,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들을 도로 가리키는(재귀) 3인칭 대명사이다. 여기에서는 '우리 집 아이들', 즉 '선생님의 아이들'을 가리킨다. 정답 ⑤

[오답피하기] ① ㉔의 '이것'은 학생이 손에 들고 있는 책을 가리킨다. ② ㉔의 '그것'은 할아버지께서 생일마다 사 주신 책들을 가리킨다. ③ ㉔의 '당신'은 2인칭이 아니라, '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3인칭 대명사'인 '자기'를 높여 이르는 말이다. 예를 들어, "철수는 자기가 가겠다고 했다."에 쓰인 '자기'와 "선생님께서서는 당신께서 가겠다고 했다."에 쓰인 '당신'을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. ㉔의 '당신'은 할아버지를 가리키며 3인칭으로 사용되고 있다. ④ ㉔의 '우리'는 선생님 혹은 선생님의 가족을 가리키기 때문에 청자(학생)를 포함하지 않는다.

3) '미연(未然)'은 사용상 원칙적으로 '미연에' 꼴로 쓰여 어떤 일이 아직 그렇게 되지 않을 때를 의미하는 어휘이다. 따라서 '결합되는 조사의 종류'라는 측면에서 볼 때 '에' 외의 조사와는 결합하지 않는 '극비리'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어휘라고 할 수 있다.

정답 ①

4) (15-B) ② 비문의 유형 및 해소

정답해설 : 이 문항은 '서술어 자릿수'의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이 빠져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을 올바른 문장으로 수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. ②에 제시된 '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.'라는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호응하지 않아 문법적으로 정확하지 못한 문장이 된 경우로, 이를 '문제는 우리가 예의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'는 사실이다.'라고 수정한 것은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문장 성분을 보충함으로써 문장을 정확하게 고친 경우가 아니다. 정답 ②

[오답피하기] ① 서술어 '요청하다'는 【...에/에게 ...을】의 꼴로 쓰여, 부사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. '그들은 양식이 다 떨어지자 식량 공급을 요청했다.'에는 부사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'정부에'를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 것이다. ③ 서술어 '소개하다'는 【...에/에게 ...을】의 꼴로 쓰여, 부사어와 목적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. '나는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내 친구를 소개하였다.'에는 부사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'누나에게'를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 것이다. ④ 서술어 '삼다'는 【...을 ...으로】의 꼴로 쓰여, 목적어와 부사어를 요구하는 세 자리 서술어이다. '우리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지금보다 강해질 것이다.'에는 목적어가 없으므로 '그 일들'을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 것이다. ⑤ '어떤 분야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다.'의 뜻을 지니는 서술어 '어둡다'는 【...에】의 부사어를 요구하는 두 자리 서술어이다. '형은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두울 수밖에 없다.'에는 부사어가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'동네 지리에'를 보충하여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으로 수정한 것이다.

5) (14-A) ④ 문장 성분 분석, 적용

정답해설 : 이 문항은 명사절이 문장 속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현상과 각각의 용례를 제시한 후 그에 대해 탐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. 정답은 ④로, ㉔에서 명사절 '겨울이 오기'에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, 명사절이 명사 '전(前)'을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어가 아닌 관형어 역할을 한다. 정답 ④

[오답피하기] ① 명사절 '색깔이 희기'는 주격 조사 '가'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다. ② 명사절 '비가 오기'는 목적격 조사 '를'과 결합하여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. ③ 명사절 '자식이 행복하기'가 문장에서 목적어로 쓰이고 있으며, 목적격 조사 '를'은 생략되었다. ⑤ 명사절 '우리가 학교에 가기'는 부사격 조사 '에'와 결합하여 문장에서 부사어로 쓰이고 있다.

6) (14-A) ⑤ 문장 성분 분석, 적용

정답해설 : 이 문항에서는 문장 성분과 문장의 구조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제시된 두 문장을 분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. 두 문장은 각각 '내가 노래 부르기', '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'이라는 명사절이 '친구들은 원한다.'와 '우리는 몰랐다.'에 안겨 있는 겹문장이다. ㉔의 안긴문장 '내가 노래 부르기'에는 '노래(를)'라는 목적어가 있지만, ㉔의 안긴문장 '이 지역 토양이 벼농사에 적합함'에는 목적어가 없다. ㉔에서 '벼농사에는' '적합함'이라는 서술어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부사어이지 목적어가 아니다. 정답 ⑤

[오답피하기] ① ㉔과 ㉔의 문장 성분을 큰 틀에서 분석해 보면, 각각 [주어 + 목적어(주어 + 목적어 + 서술어) + 서술어], [주어 + 목적어(주어 + 부사어 + 서술어) + 서술어]로 구분할 수 있는데, 부사어는 ㉔에만 나타날 뿐 ㉔에는 나타나지 않는다. ② ㉔과 ㉔은 모두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며, 두 문장 모두에서 부사절은 나타나지 않는다. ③ ㉔과 ㉔은 모두 명사절로 안겨 있는 문장이며, 두 문장 모두에서 서술절이나 관형절은 나타나지 않는다. ④ ㉔의 문장에는 관형어가 나타나지 않는다. ㉔의 문장에는 '이'가 '지역'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이고 있으며, '이 지역'이라는 구 역시 '토양'을 수식하는 관형어로 쓰인다.

7) 정답 ③

안긴 문장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풀 수 있다. '담장은 이마에 흐르는 땀을 씻었다.'라는 문장은, '담장은 땀을 씻었다.'와 '땀이 이마에 흐른다.'라는 문장을 결합하여 안긴 문장을 만든 것이다. 따라서 '이마에 흐르는'의 주어는 '담장'이 아니라 '땀'이 되어야 적절하다.

8) 정답 ④

④의 '밥 좀 먹읍시다'는 청자에게 조용히 해 달라는 요구를 하는 동시에 '밥을 먹는' 행위를 화자만 행하려는 의도가 들어있다고 할 수 있다. ㉔ ①, ②은 청자의 행동을 바라고 있고, ③ '같이'와 ⑤ '토의'라는 단어를 볼 때 서술어의 행동을 화자와 청자가 공동으로 행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.

9) (14-A) ④ 시제 표현 파악

정답해설 : 이 문항은 선언말 어미 '-았-/-었-'이 '사건이나 상태가 과거(㉔)'를 나타낼 때, '과거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됨(㉔)'을 나타낼 때, '미

래에 일어날 일을 확정적인 사실(㉠)로 나타낼 때 사용된다는 <보기>의 설명을 통해 선어말 어미 '-았-/었-'의 다양한 의미를 탐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. 정답은 ④이다. ④는 '소풍날'이라는 과거 시간에 '날씨'라는 상태가 나뉘음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, '과거에 일어난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됨(㉡)'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, '사건이나 상태가 과거임(㉢)'을 나타내기 위해 '-았-'이 쓰인 것이다. 정답 ④

[오답 피하기] ① '어제'라는 과거의 시간에 '텔레비전을 본'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 '-았-'을 쓰고 있기 때문에 ㉡에 해당하는 예이다. ② '아까'라는 과거의 시간에 '할머니 생신 선물을 사러 간' 사건을 나타내기 위해 '-았-'을 쓰고 있기 때문에, ㉡에 해당하는 예이다. ③ '아직도'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, '목이 잠긴' 과거 사건의 결과 상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기 위해 '-었-'을 쓰고 있기 때문에 ㉠에 해당하는 예이다. ⑤ 과제 준비 때문에 앞으로 잠을 자지 못할 것이라는 미래의 일을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임을 나타내기 위해 '-았-'을 쓰고 있기 때문에 ㉡에 해당하는 예이다.

10) 15. 높임 표현 파악
정답 해설 : 이 문항은 우리말에서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방식을 네 유형으로 분류하여 제시한 후 해당되는 용례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고 있다. 정답은 ③으로, '먹다-잡수시다'의 관계를 볼 때 주체(할머니)를 높이는 용언(㉠)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고, '나이-연세'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(할머니)과 관련된 것(할머니의 나이)을 높이는 명사(㉡)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. 정답 ③

[오답 피하기] ①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'그분'과 '성함'인데, 전자는 '그 사람-그분'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(그 사람)을 직접 높이는 명사(그분, 대명사)이고, 후자는 '이름-성함'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(그 사람)과 관련된 것(그 사람의 이름)을 높이는 명사(㉡)이다. ②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'여쭙'과 '덕'인데, 전자는 '묻다-여쭙다'의 관계를 볼 때 객체(물음을 받는 대상)를 높이는 용언이며, 후자는 '집-덕'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(할머니)과 관련된 것(할머니의 집)을 높이는 명사(㉡)이다. ④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'부모님'과 '모시고'인데, 전자는 '부모-부모님'의 관계를 볼 때 높여야 할 인물(부모)를 직접 높이는 명사(부모님)이고, 후자는 '데리다-모시다'의 관계를 볼 때 객체(부모님)를 높이는 용언이다. ⑤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한 것은 '주무시다'인데, '자다-주무시다'의 관계를 볼 때 이는 주체(어머니)를 높이는 용언(㉠)이다.

11) 정답 ②

11. 한글맞춤법 규정 파악

정답 해설 : '파생어/합성어', '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기/밝히어 적지 않기'를 기준으로 하여 네 유형을 제시한 후 각각에 해당되는 사례를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. 정답은 ②이다. '우뚱'과 '지붕'은 각각 '묻- + -엄', '집 + -웅'으로 분석될 수 있는 파생어이지만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고 있다. 원형을 밝히어 적었다면 '*묻엄, *집웅'이 되어야 할 것이다. 또한, '뒤뜰', '쌀알'은 각각 '뒤 + 뜰', '쌀 + 알'의 합성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고 있다. 정답 ②

[오답 피하기] ②에 제시된 '우뚱, 지붕, 뒤뜰, 쌀알' 이외에 제시된 단어는 '마중'과 '길이'인데, '마중'은 '맞- + -웅'으로 분석될 수 있는 파생어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않는 경우이며, '길이'는 '길- + -이'의 파생어(명사 또는 부사)이면서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 경우이다.

12) 정답 ⑤

㉠의 '만사위'는 '만이'를 나타내는 접두사 '만'과 명사 '사위'가 붙어서 이루어진 단어이므로, 각각의 원형을 밝혀 적은 항목의 사례에 해당하는 것이다. 하지만 '깍두기'의 경우에는 '깍'의 'ㄱ'받침 뒤에서 '두'의 'ㄷ'이 'ㄸ', 즉 된소리로 발음되는데, '깍'과 '두'는 같거나 비슷한 음절이 아니므로 된소리로 적지 않고 '두'로 적는 것이다. 따라서 이는 ㉡가 아니라 ㉢의 규정에 따라 표기한 사례로 보아야 한다.

13) 정답 ⑤

<보기>에서는 맞춤법 규정 19항과 그 해설을 보여주었고 있다. 이 규정을 바르게 이해하여 어휘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. 맞춤법 규정의 붙임에서 어간에 '-이'나 '-음' 이외의 모음으로 시작된 접미사가 붙어서 다른 품사로 바뀐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는다고 했다. 이를 토대로 ㉤의 '마개'를 분석해 보면 '막+애→마개'가 된 것이기에 어간에 '애'가 결합된 것임을 알 수 있다. 즉, '마개'는 원래 어간의 뜻과 멀어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 아니라, 제1항 [붙임]의 사례와 같은 이유로 해서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은 것이다.

14) 정답 ④

①은 '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실어'라고 써야 하며, ②는 '우리 모두의 바람'이라고 써야 한다. ③은 '돈이 너무 적어'로 써야 하며, ⑤는 '김장을 직접 담가'로 써야 한다. ④는 '늘이다'와 '늘리다'의 쓰임을 묻는 문제로, 수나 분량의 경우에는 '늘리다', 길이나 넓이의 경우에는 '늘이다'를 사용하므로 ④는 올바른 표현이다.

15) 정답 ③

㉠은 '설거지', ㉡은 '찌개', ㉢은 '텔레비전', ㉣은 '계시던'이 표준어이다.

16) 정답 ②

13. 문장 성분의 호응 파악

정답 해설 : <보기>에서 주어와 서술어 사이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잘못된 문장에 대해 설명한 후, 같은 유형의 사례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묻고 있다. 정답은 ②로, 주어진 '특징은'과 호응하는 서술어가 없기 때문에 잘못된 문장이 된 경우이다. 정답 ②

[오답 피하기] ① '구매'와 '구입'의 의미가 중복되어 잘못된 문장이다. "회원들은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."나 "회원들은 상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." 정도로 수정해야 한다. ③ '여간하다'는 부정어 앞에 쓰여 '이만저만하거나 어지간하다.'의 의미를 지니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"아들의 성공 소식은 부모님께 여간한 기쁨이 아니었다."로 수정해야 한다. ④ 목적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어색하여 잘못된 문장이다. 이 문장의 목적어는 '유해 물질'과 '연료 효율'인데 '연료 효율을 높여 준다.'는 성립하지만 '유해 물질을 높여 준다.'는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다. ⑤ '형언하다'는 주로 부정어와 함께 쓰여 '형용하여 말하다'의 의미를 지니는 동사이다. 따라서 "형언할 방법을 찾았다."는 잘못된 표현이다.